

서양 예술작품에 나타난 넥타이의 역사적 고찰

이 의 정[†] · 정 세 희^{*}

서일대학 의상과 부교수[†]

서일대학 의상과 시간강사^{*}

A Development of Necktie Design in Western Art

Eui-Jung Lee[†] · Se-Hui Chung^{*}

Associate Prof.,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Seoil College[†]

Part 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 Textiles, Seoil College^{*}

(2005. 12. 17. 접수; 2006. 1. 30. 채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sociocultural phenomena which affected to clothing change in 1650-1900 and to examine the features of men's necktie in the western art.

For this study, information about historic neckwear is obtained from the visual evidence of painted or engraved portraits, contemporary written sources. The covered area of this study was Europe mainly England and France.

For this process, research steps were as follows :

1. Investigating the sociocultural phenomena which affect to clothing change through 1650-1900 and analysis of men's clothing and appearance. 2. Finding the changing characteristics of neckties including it's different types, shapes, knots, colors and materials and analyz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neckties by the times. 3. Examining necktie as one of important and representative icons of male gender identity.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as follows:

1. In 1660-1900, men's fashion was simplified in color and detail due to the influence of practical Puritanism and matured civil culture. And British men's fashion spreaded throughout whole European countries and get popularity.

2. In 1650-1720, there were band, cravat and steinkirk. And especially cravatier, a expert custodian of cravats, was appeared in that period. In 1720-1800, there were stock, solitaire and cravat. In 1800-1850, neckwear were popularized and got various sizes and types up to shape and size of chemise collars. Black stock, scarf cravat and shawl cravat were popular and terms of 'necktie' were used for an certain neckcloth shape. And abundant literature for necktie were published thanks to the development of printing technology in that period. In 1851-1900, the ready-made neckties were spreaded and there were changes in shape, length, knot of necktie up to V-zone formed with shirt's collars and vest types. Neckwear was gradually evolving through four distinct styles, bow tie, scarf or neckerchief, Ascot and four-in-hand.

3. After the mid-17th Century, as civil culture matured and splendid and extravagant colorful men's wear disappeared, British men's fashion spreaded throughout whole European countries and got popularity. The necktie become an essential ornamental accessory of men's fashion and one of important and representative icons of male gender identity.

Key Words: cravat(크라바트), neckwear(넥웨어), necktie(넥타이)

I. 서론

넥타이란 목 또는 칼라 둘레를 매는 밴드형의 천을 총칭하는 용어로, 보통은 남성용으로 넥웨어의 중요한 일부였으나 오늘날에는 여성의 액세서리의 일부로도 쓰이고 있다.

현재 남성의 넥타이는 정장 연출시 가장 크게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남성들은 셔츠와 넥타이가 수트 사이로 보이는 V존을 잘 연출함으로써 자신의 이미지를 살리고, 자신만의 독특한 개성을 창출할 수 있다.

넥타이의 유래는 기원전 로마나 중국 군인들이 착용한 것으로 그 기원이 거슬러 올라가며 17세기 재등장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수 백 년 동안 도태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면서 남성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패션 아이템으로서 자리매김 하였다.

넥타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 넥타이 직물과 문양에 대한 서향란, 이정희 등의 연구¹⁾와 넥타이의 디자인에 대한 정은선, 정옥향의 연구²⁾ 등이 있으나 넥타이의 시대별 유형과 형태 변화 및 발전에 대한 비교 분석적 논의는 미미하므로 착용자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특성 등을 고려한 다차원적 관점에서 이를 규명하는 것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서양 궁정 초상화, 가족 초상화 및 패션 삽화를 사료로 하여 1. 1660-1900년의 시대별 사회 문화적 현상과 남성 복식과 외모의 변화양상의 상호 관련성을 고찰하고, 2. 시대별 넥타이의 형태, 종류, 착용방법, 소재, 색상 등을 비교·분석하며, 3. 넥타이가 남성 정체성 형성의 중요 아이템으로 정착됨을 규명함으로써 넥타이에 대한 질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17세기에서 19세기 동안의 현존하는 넥타이 실물 유물이 드물기 때문에 넥타이에 대한 사적 자료들은 종종 회화나 조각된 초상화, 상품이나 재산목록이나 회계 장부와 같은 동시대 문헌 자료, 편지,

일기, 동시대 문학으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예술 작품은 복식사 연구에 있어 문헌 자료를 보완해 줄 수 중요한 자료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넥타이의 초기 형태인 크라바트가 등장한 17세기에서 현재 남성들이 착용하는 넥타이의 기본형이 확립된 19세기로 제한하고 넥타이 특성을 고찰하였다. 17, 18세기는 군주나 귀족들이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해 회화와 조각 등을 예술품으로 사용하면서 미술이 발달하게 된 시기로 초상예술이 주종을 이루었으며, 유럽의 인쇄술 발달은 복식과 넥타이에 대한 출판물을 등장시켰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 인물의 의상과 외모를 시대별로 살펴 볼 수 있는 초상화와 궁정화를 활용하여 넥타이의 변화와 발전을 고찰하였으며,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 이르러 넥타이의 형태와 착용방법을 상세하게 묘사한 패션 관련 문헌 자료들이 증가하였으므로 이에 실린 패션 삽화 등을 동시에 활용하였다.

II. 넥타이의 역사적 고찰

넥타이(영어 necktie; 불어 cravat)란 목 또는 것의 둘레에 감아서 여분을 앞부분에 늘어뜨리는 창이 좁은 띠나 끈 모양의 천의 총칭³⁾으로서 보통 정장 개념의 남성 신사복 착용시 드레스셔츠의 목 부분에 매어 이를 맨 사람의 개성과 교양 및 멋에 대한 감각을 잘 나타내주는 남성 양복용의 장신구이다.

넥타이는 고대 군인들이 위생이나 기후조건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목에 천을 두른 것에서 비롯되었다. 실물 크기의 테라코타 형상으로 발



A. 기원전 2세기, 로마 B. 기원전 3세기, 중국

〈그림1〉 기원전 넥타이의 초기 형태

† Corresponding author ; Eui-Jung Lee
Tel. +82-16-791-3017, Fax. +82-2-6351-5758
E-mail : seoil1224@hanmail.net

견된 기원전 3세기 중국 초대 황제시대의 군인들과 트라야누스 로마에 있는 전승기념비에 그려진 로마 보병들의 목에 둘러져 있는 천이 이것을 증명한다<그림1>.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스카프는 사라졌다가 15세기가 지난 뒤 목을 장식하는 천으로 재등장하였다⁴⁾.

크리바트의 기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지만, 30년 전쟁(1618-1648)에 참가한 프랑스 군인들이 자신들의 목둘레를 장식한 뺏뺏한 칼라보다 편안해 보이는 지금의 유고슬라비아 지방인 크로아티아(croatia) 출신 프랑스 동맹군이 두른 목수건에 매혹되어 이것을 모방하면서 착용되었다고 주장된다.

이 양식은 Louis XIV 시대의 귀족 사이에서 유행하게 되어 1650년경 넥타이의 초기 형태인 크라바트가 생겨났고,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다. 귀족들은 크로아티아식의 단순하고 소박한 스카프를 머슬린을 소재로 한 넓은 매듭 형식으로 만들고 여기에 간혹 실크 리본으로 장식하는 등 한층 세련된 형태로 변형시켰다⁵⁾.

크라바트의 시초에 관하여 크로아티아 병사들에 의한 도입설과는 대조적인 설도 있는데, Louis XIV(1643-1751) 시기에 와서 사용하기 시작한 거대한 가발이 칼라의 대부분을 가리고 전면 일부분을 보이게 됨에 따라 바깥으로 드러나는 칼라의 전면이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어 칼라를 점점 크게 만들다 보니 늘어진 모양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발전하여 크라바트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⁶⁾.

이러한 스카프 형태의 천을 목에 걸친 중국, 로마, 크로아티아인들은 추운 기후 하에서 지낸 전투병이라는 공통적 특성을 가진다. 즉 역사상 최초의 넥타이의 주 기능은 결국 혹독한 자연조건, 곧 추위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다. 17세기 남성용 스카프가 다시 등장하여 일반화된 시기인 1645년부터 1705년의 기간 동안 역시 천체물리학자들이 이른바 ‘최소의 몬더(Maunder)’라 명명한 이상기후 현상이 출현한 시기로 태양운동의 약화로 지구상의 많은 지역에서 기온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일찍이 없었던 엄청난 추위에 사람들이 목을 감싸 덮어주는 의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을 것이라 보는 가정이 타당하다⁷⁾.

Ⅲ 넥타이의 시대별 유형 및 특성

16세기 후반 유럽에서 유행한 스페인 의복 스타일이 17세기로 이어져 남성과 여성복에 주름을 잡은 칼라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지속적으로 착용되어졌다. 영국에서는 청교도의 영향으로 짧게 자른 네덜란드 두발 형태가 확산되었고 검소함을 중시하는 종교의 영향으로 프랑스 복식과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Louis XIV가 즉위함에 따라 절대 왕정이 번영하게 되었으며 영국에서도 1660년 왕정복고로 프랑스에 호의적인 Chales II가 즉위하였다. 이에 프랑스 남녀 의복 스타일이 영국에서도 유행하게 되면서 유럽 모두가 특정 지역에서 국제적,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광대한 국토와 뛰어난 국민성을 바탕으로 한 프랑스 절대왕정은 국제적 상업의 성장을 통해 모드의 발전을 가져왔고 1618-1648년 30년 전쟁 역시 의복 문화를 진보시켰다. 신흥 해운국인 네덜란드는 실용적인 시민풍 복식을 유럽에 유행시킴에 따라 스페인 중심의 화려하고 기교적인 귀족풍 복장에 비해 합리적인 근대 복식으로서의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와 영국의 남성 패션이 각 국가의 세력 확대에 따라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 1650년대 후반부터 현대 남성복 형태가 정착된 1900년까지를 중심으로 사회와 복식 변화기에 초점을 두어 1650-1720, 1721-1800, 1801-1860, 1861-1900의 네시기로 구분하고 이를 각 시기별로 비교 분석함으로써 넥타이의 변화, 발전을 고찰하였다.

1. 1650-1720

1650-1720년은 프랑스와 영국의 패션이 상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게 된 영국의 왕정복고 시대부터 사치스럽고 화려하며 장식적인 의복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Louis XIV가 서거하기까지의 기간이다.

프랑스의 Louis XIII와 Louis XIV가 즉위 기간은 국내 통일과 중앙집권으로 왕권이 차츰 신장된 시기로 유능한 관료들을 등용해서 경제 정책을 연마하고 외국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여 국력 배양에 힘

썼다. 화려한 직물과 자수·레이스 등이 풍부하게 나타났으나 1625, 1633, 1634년에 화려한 금·은사 직물, 레이스, 벨벳, 새틴 등의 장식 및 직물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1639년 사치금지령을 발표함으로써 지나치게 화려한 복식이 안정을 찾게 되었다⁸⁾.

17세기 남성복은 시민문화의 육성으로 16세기의 귀족풍이 감소되었고, 경제 정책에 의한 사치금지령의 영향과 더불어 오랜 전쟁으로 동작을 방해하는 복장이 불편하게 여겨졌으므로 단순화되고 몸에 여유 있게 맞아 입기 편하고 활동성 있는 실용적인 복식으로 변화하였다.

당시 넥타이는 얼굴에 가깝게 착용되어 외모를 향상시켜주고 자신감을 증가시켜주었으며, 오염으로부터 더블릿의 칼라와 신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넥타이의 소유양과 고급 소재 사용 여부가 착용자의 부를 나타냈는데 세탁, 건조한 후 다림질을 하여 착용되는 넥타이 관리에 많은 시간, 노력, 비용이 들기 때문이었다.

(1) 밴드

17세기 초 프랑스에서 크라바트가 유행하기 이전에는 밴드 스트링스(bandstrings)라는 린넨 소재의 밴드에 끈이 달려 턱 아래에서 묶는 형식의 장식품이 유행하였다⁹⁾. 밴드는 러프가 아닌 형태의 목에 두르는 의복 유형에 붙여진 이름으로 셔츠 칼라에 부착되거나 더블릿 칼라 위에 늘어지도록 탈 부착하는 아이템이다.

<그림2-A>는 1953년 작가를 알 수 없는 귀족 초상화로 머슬린으로 된 심플하고 길이가 짧은 밴드 형태를 착용하고 있는 반면, 1685년 작품<그림2-B>에서 Colbert de Villacerf는 당시 인기 있었던 고

급 레이스 소재의 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17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두 초상화 모두에서 타슬(tassel) 장식이 달린 스트링으로 밴드를 고정시킨 것을 볼 수 있다.

(2) 크라바트

크라바트(cravat)는 칼라에 늘어진 직사각형 모양의 긴 타월을 목에 한 두 번 감은 후 턱 아래에서 묶어 착용하는 넥웨어(neckwear)를 일컫는 명칭이다¹⁰⁾.

이 시기 크라바트의 착용방식은 심플한 머슬린이나 레이스 소재의 직사각형 천을 목에 두른 후 앞에서 밴드 스트링을 이용해 묶어 고정시키는 방식과<그림3-A> 크라바트의 양 끝을 목 앞으로 모아 나비모양으로 묶는 방식<그림3-B>으로 나뉜다.

17세기 초반, 크라바트는 주로 결이 고운 면 머슬린이나 질 좋은 흰 린넨으로 만든 일종의 띠 형태로 간혹 양쪽 가장자리가 레이스로 장식되었으며 차츰 전체 소재가 레이스로 되면서 고급화되었다. 사람들은 이 띠를 목에 한두 번 감고 양쪽에서 매듭을 지은 다음 양 자락을 아래로 늘어뜨렸다.

당시 상류사회에서는 군인들로부터 유래된 크라바트에 장식품을 첨가하였는데 컬러가 있는 실크로 나비 모양을 만들어 매듭 위에 한 개 붙였으며 Louis XIV 때에 이르러서는 점차 더 큰 나비를 크라바트 매듭 양쪽에 여러 개씩 붙이곤 하였다¹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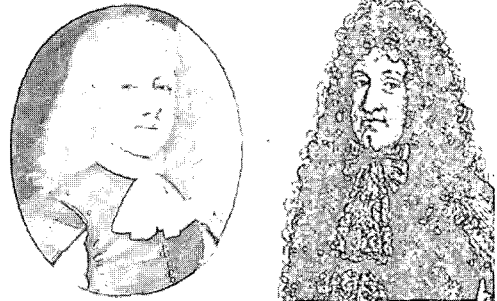
크라바트를 매는 것은 Louis XIV에게 중요한 아침 일과로 여러 가지 장식과 다양한 색채의 리본으로 된 크라바트를 쟁반 가득 채워 왕에게 바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크라바트 취급 전문



A.1653

B.1685

〈그림2〉 17C초 밴드



A.1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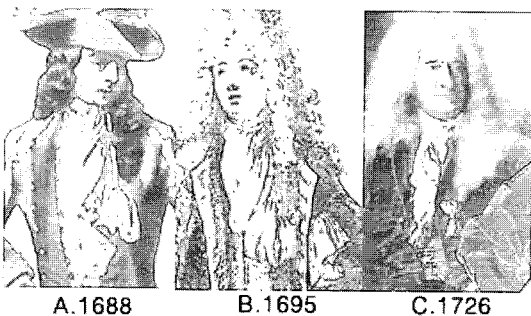
B.1680-1690

〈그림3〉 매듭법에 따른 크라바트

관리인 크라바티어(cravatier)를 정식으로 임명하기 까지 하였다¹²⁾.

시중들어 주는 전문인이 없거나 솜씨가 없어서 잘 매지 못하는 사람 또는 시간에 쫓기는 사람들을 위해 기성제품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는 상점에서 구매해 목 뒤쪽에 훅(hook)을 채우기만 하면 되었다.

<그림4>는 17세기 Louis XIV가 시대별로 착용했던 크라바트를 보여준다. 1615년 Louis XIV가 Grotto of Thetis를 방문한 <그림4-A>에서 Louis XIV는 흰색 레이스로 된 크라바트를 하고 당시 특정 귀족과 왕족 남성들이 착용하던 색상인 붉은색 나비모양을 달아 고정하여 다른 귀족과 군사들이 흰색이나 파란색 나비모양을 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반면 1650-1680년대에 Louis XIV<그림4-B>는 장식적이고 화려한 패션 취향을 반영하여 나비모양을 여러 개 중복해서 만들어 착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일 시기의 영국 James II세가 착용했던 한 개의 나비모양으로 묶은 크라바트<그림3-B>와 대조적이다. 1711년 XIV세<그림4-C>는 화려한 금색 실로 섬세한 꽃모양을 수놓아 화려하게 장식한 쥐스토코르 안에 푸른 웨이트코트를 입고 목에 길고 리본 장식을 하지 않아 목이 편안해 보이는 크라바트를 매듭으로 한번 묶어 착용하였다. 이로써 시대의 흐름에 따라 크라바트의 길이와 매듭법, 소재와 컬러의 사용 등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4> 시대에 따른 Louis XIV의 크라바트

(3) 슈타인커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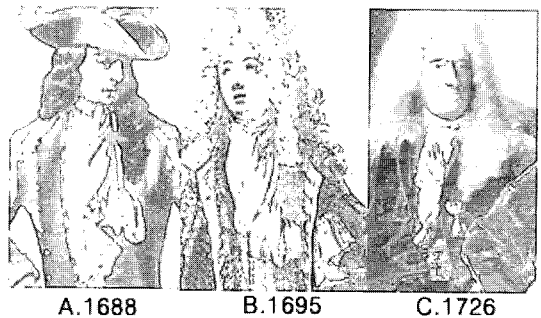
슈타인커크(steinkirk)는 긴 조각 천을 혈령하게

묶고 그 끝부분을 레이스와 프린지로 장식하여 목에 착용하는 것으로 대개 목에 둘러 한번 꼰 후 앞으로 내려 그 끝을 걸옷의 한 단추 구멍에 끼워 고정시키는 넥웨어이다<그림5>.

1692년 8월 프랑스와 홀란드가 전쟁 중에 플랑드르 지방의 슈타인커크(steinkerque)라는 마을에 주둔 중이던 프랑스 군이 적군의 습격을 받자 크라바트를 정식대로 맬 시간적 여유가 없어 목에 두른 후 매지 못한 끝을 코트의 단추 구멍에 끼워 넣었다. 이 싸움에서 프랑스가 대승하자 그 기념으로 크라바트를 슈타인커크식으로 매는 것이 유행하였다¹³⁾.

또한 17세기 후반 풀을 먹여 뻗뻗하게 세운 러프가 점차 어깨나 혹은 그 밑으로 길고 부드럽게 늘어지는 헤어스타일에 부적합한 비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가슴까지 오는 슈타인커크는 인기를 얻게 되었다.

특히 1680-1690년대 유행한 두꺼운 베네치아 니들 레이스의 인기가 감소하고 동인도 회사가 17세기 말 인도로부터 머슬린 수입 양을 늘리게 됨에 따라 함에 따라 린넨, 머슬린 소재의 넥클로스(neck cloth)들이 선호되었다.



<그림5> 슈타인커크

2. 1720-1800

18세기 중엽 이후 정치, 사회적 혁명이 전개되면서 경제 분야에서는 종래의 수공업적 소규모 생산에서 대규모 공장제 생산으로의 변혁이 진행되고 있었다¹⁴⁾.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은 유럽의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으며 영국과 프랑스 모두 직

물공업의 기계화가 선행되어 이로 인한 면직물의 발달은 재료적 측면에서 복식 발달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인쇄기술의 발달로 잡지가 대량 출판됨으로써 17세기 사람을 실물 크기로 만든 인형을 사용한 모드 전달방식은 2차적 전달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잡지는 1672년 발간된 「Mercure Galant」이 1728년 「Mercure de France」로 개명되어 1792년까지 발간되었으며 이어 La Galerie des Modes가 1778년 이후 연간으로 발행되었는데 화가 Watteau가 삽화를 그렸다. 이들 잡지는 의상의 형태, 재료, 착용법, 자수도안 또는 예의와 문화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당시 복식 문화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며 후에 복식 자료로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¹⁵⁾.

모드지와 함께 의상실과 기성복도 눈에 띄게 나타났다. 자기 집에 재봉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모드지에 의해 자유로이 옷을 만들 수 있었지만, 이들은 극히 소수였고 대부분은 의상실을 선택하여 맞춰 입었다. 기성복점은 1770년경 의상실을 하던 Daltigalon에 의해 처음 개점되었는데 이는 근대 복식문화를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¹⁶⁾.

(1) 스톡과 솔리테르

1715년 Louis XIV세가 서거하자 프랑스에서는 슈타인키르크가 자연스럽게 퇴조하고 크라바트는 사이즈가 작아지는 한편 점차 신사복에서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자리잡으면서 근대 넥타이의 근원이 되었다. 반면 새로운 형태의 넥타이가 등장하여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크라바트는 공식적인 예복에만 사용되었으며 스톡(stock)과 솔리테르(solitaire)가 이를 대체하였다.

스톡은 가슴 부위로 천 자락을 늘어뜨리지 않고 홀 띠의 천을 목둘레에 감거나 뒤에서 버클로 고정시키는 캄브릭(cambric)이나 린넨 소재의 기성품 칼라 밴드이다. 이는 셔츠 앞트임 가장자리가 중앙에 트임이 있는 주름장식 테두리인 자보(jabot)로 장식되고 웨이스트 코트의 단추를 채우지 않은 틈사이로 이것이 돌출되면서 크라바트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크라바트 형태가 목 주위를 수평 방향으로 두른 형태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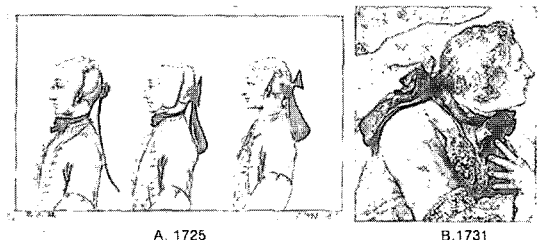
초기에는 단순히 직사각형의 머슬린을 좁은 밴드 모양으로 접어 위로 치켜진 와이셔츠 칼라 둘레를 두세 번 두른 다음 뒤쪽에서 핀으로 고정시키는 밋밋한 형태였다. 착용 과정이 다소 복잡했으므로 형태가 미리 만들어져 가장자리가 바느질된 머슬린 밴드를 사서 고리만 채우면 되는 기성품이 나왔는데 이는 품질 좋은 흰 린넨에 뽀뽀하고 두꺼운 종이를 넣어 채움 고리를 단 것이다.

스톡은 의복에 대한 영국인들의 검소함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섬세하고 장식적인 것을 선호하던 프랑스풍과는 대조적이지만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계몽주의 운동과 더불어 프랑스를 중심으로 남성의 복장이 간소화되면서 1760년부터 널리 보급되었다. 커다란 스카프 형태로 목에 감았던 넥타이가 작아져 칼라 부분만 살짝 가릴 수 있는 간단한 끈 모양으로 변화하였으며 자유스러운 멋쟁이 후작들은 여기에 앙증맞은 검은 리본으로 장식했는데 이는 솔리테르라 불리는 양식이다.

18세기 초, 17세기에 유행하던 대형 가발이 승마와 전투에 부적절하였으므로 군인들은 편리한 머리형인 땅은 머리를 하였다. 이 땅은 머리는 피그테일(pig tail)이라고 하며, 중국을 통해 유럽으로 전파된 것이 다시 일반에게 유행되어, 땅는 방법과 길이·리본 묶는 법·나누어 땅는 법 등으로 형태가 변화되었다.

1730년경 신사들이 좋아한 백 위그(bag wig)는 옆머리를 짧게 자른 후 비둘기 날개형으로 다듬고, 뒷머리는 크라뽀(crapaud)라 부르는 검은색 태피터 주머니에 넣고 그 끝을 목 부분에서 나비처럼 묶은 것이다. 때때로 백 위그와 솔리테르가 조화를 이루며 점차 그 크기가 커지고 화려해짐에 따라 장식성이 극대화되기도 하였다.

<그림6-A>는 3가지 유형의 솔리테르와 백 위그



<그림6> 솔리테르와 위그 백(wig ba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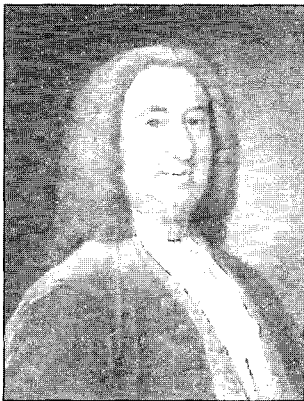
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꼬라뽀가 좁고 길 경우 보다 큰 사이즈의 솔리테르로 장식하고 옆머리가 길어짐에 따라 큰 꼬라뽀를 착용하게 됨에 따라서 간소화된 솔리테르의 형태를 착용함을 볼 수 있다. <그림6-B>는 J.E.Troy의 구애하는 남성의 초상화로 백 위그의 묶은 끝을 목의 앞쪽으로 가져와 나비모양으로 묶어 착용하고 있다. 이는 귀족적, 여성적이고 우아한 미술 양식이 반영되어 꽃, 리본, 조화, 루프, 켈팅, 트리밍, 플라운스, 자수, 레이스 등의 디테일로 장식함으로써 의상 자체를 하나의 장식미술로 취급한 로코코 예술 취향이¹⁸⁾ 남성복에 반영된 것이다.

(2) 넥클로스와 스톱

스톱은 캄브릭으로 주름을 잡거나 폴을 뺏았이 먹여 목에 두르고 목 뒤에서 금, 은이나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버클로 고정시킨 후 가발과 함께 착용되었다.

18세기 중엽 이후로는 착용하기 불편하고 높이가 턱 바로 아래까지 오도록 높아지고 뺏뺏해진 스톱을 사용하였다. 모헤어나 버크럼(buckram)을 재료로 제작되기도 하였으며 대개 가죽으로 심을 만든 후 그 겉을 벨벳, 새틴, 실크로 싸서 만들기도 하였다.

1742년 영국의 남성 멋쟁이인 덴디 중 한명이었던 Beau Richard는 'Beau Nash'로 더 잘 알려진 인물로 의복, 매너, 스타일의 권위자로 여겨졌다¹⁹⁾. 그는 흰색 스톱을 착용하고 앞쪽에서 버클로 고정시켰다<그림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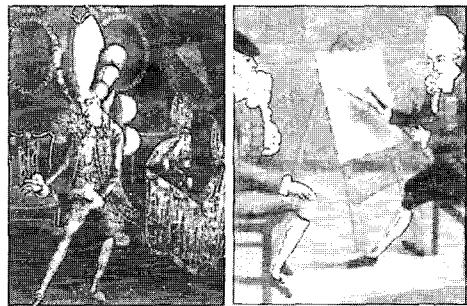


<그림7> 스톱을 앞쪽에서 버클을 사용해 착용한 Beau Nash, 1742.

(3) 크라바트(Cravat)

1770년경 마카로니(Macaroni)들에 의해서 크라바트가 다시 유행하였다. 이들은 George III세 시대에 이탈리아 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이탈리아 스타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1764년 결성한 마카로니 클럽에 속하는 패셔너블한 남성들이다.

마카로니는 영국의 젊은 귀족 무리로 런던에 살면서 거만하고 경망스럽게 빨간 불연지를 바르고 커다란 가발을 착용하였으며 허벅지 길이의 슈트, 몸에 꼭 맞는 슬리브가 달린 타이트한 재킷, 스트라이프 패턴의 웨이트 코트, 극단적으로 높고 딱딱이기는 스톱, 가슴 위로 폭포수처럼 층층이 드리워진 커다란 흰색 크라바트 등을 착용하고 가슴 포켓에는 손수건을 끼워 넣었다. 또한 짧은 흰색 실크 바지, 스트라이프 스타킹,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무도회, 등을 착용하여 여성처럼 꾸미고 다녔다²⁰⁾. 특히 이들은 넓은 폭의 마, 머슬린, 실크를 비스듬히 재단하여 목 주위에 여러 번 둘러 맨 후 앞쪽에서 과도하게 큰 리본으로 묶어 턱 위로 올라오려는 요란스러운 크라바트를 착용하였다<그림8-A, 그림8-B>.



A. 1772

B. 1800년경



C. 1792



D. 1796

<그림8> 마카로니(英)와 앵크로와야블(佛)의 크라바트

프랑스에서도 프랑스 혁명 및 그 직후 세기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남녀 복식이 변화와 실험의 장이 되어 젊은 남성들은 극단적인 패션을 하게 되었으며 이를 '불가능한',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등의 의미를 갖는 '앵크로와야블(Incroyables)'이라 불렀다²¹⁾. 이는 비정상적이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신을 가꾸는 일에 온갖 열정을 바친 이 젊은이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들은 한없이 높고 넓은 칼라가 달린 코트, 목과 턱을 감싼 패셔너블한 크라바트, 꼬인 지팡이, 부츠, 삼각형 모자 등을 착용하였다²²⁾.

크라바트는 노출된 목에 매기도 하고 두툼한 캄브릭이나 린넨 소재의 크라바트를 턱 바로 밑까지 여러 번 감아 리본으로 묶거나 스카프처럼 두르기도 하였다. 특히 앵크로와야블의 대형 크라바트는 너무 커서 아래 입술에 와 닿는 것도 있었으며 수많은 풍자의 대상이 되었다<그림8-C, 그림8-D>.

3. 1800-1850

19세기는 근대사회의 발생과 발전의 시기이며 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되고 자본주의가 성숙되어 시민들의 문화가 서서히 자리잡아가는 시기였다.

1789년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은 유럽 각국, 남미, 미국 등 세계 전역에 걸쳐 혁명의 자극제적인 역할을 하였고, 혁명 후에도 여러 차례 일어난 정치적 혁명과 전쟁을 통하여 19세기 유럽의 각 국가들은 근대국가로서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갔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크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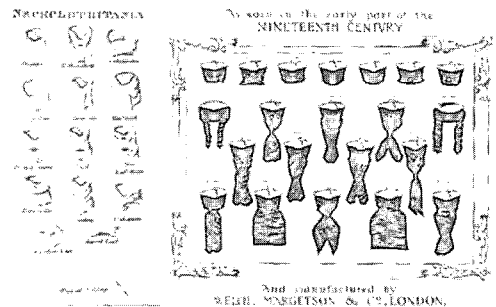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르네상스 이후 18세기 말까지 약 300년간 지속되었던 호화스러운 귀족문화와 복식은 색과 다양성 그리고 장식성이 상실되면서 새로운 모드를 형성하였다. 남성복식은 점차 간소화되어 긴 바지를 착용했으며 경시되었던 검은 색이 교회복, 예복, 공복의 색상으로 새로운 권위를 가지게 되어 유행하였다.

영국에서는 목에 무언가를 두르지 않으면 옷을 잘 입었어도 신사 측에 속하지 못했으며 목장식이 화려할수록 더욱 신사답다고 여기게 되었다. 18세기 이후 신사복 유행을 영국이 주도하게 되자 크라

바트 대신 '넥클로스'라는 명칭이 일반화되었다.

상류층에서는 여전히 스톡 양식을 고수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1815년부터 1830년까지 런던의 패션, 나아가 유럽의 패션은 Beau Brummel이라는 패션 혁신자가 주도하였다²³⁾. 단순성을 미의 최우선 요소로 보는 그는 지나친 장식을 거부하였으나 예외적으로 크라바트만을 좋아하여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크라바트를 착용하였다. Brummel은 품질이 우수한 린넨나 머슬린 넥타이만 뒀으며 이상적인 형태를 잡기 위해 약하게 풀을 먹었는데 이는 그가 최초로 시도한 기법이다. 부풀린 형태, 멋지게 묶는 매듭 기술은 런던의 모든 멋쟁이들의 경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 시기에 남성의 넥웨어가 중시된 것은 넥타이에 관한 문헌정리가 이루어진 사실을 통해서도 증명된다. 최초로 등장한 넥타이에 대한 출판물인 「Neckclothitania」<그림9-A>나 「Tietania : Being on essay on starches, by one of the clothes(1818)」는 의복 아이템뿐만 아니라 크라바트를 묶는 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재봉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남성복 전체에 관심이 집중되는 시점에 출판되었다²⁴⁾. 1827년 파리에서는 Emile de L'Empese의 「L'Art de Mette Sa Cravat En Seize Lecons」라는 제목의 소책자가 출간되었다. 이는 14개의 넥타이로 맺 수 있는 18가지 이상의 매듭 방식이 실려 있으며, 각 방식의 정신적, 심리적 측면까지 설명되어 있다. 또한 이 책은 1828년 H le Blanc Esq에 의해 영국에서 「The Art of tying the cravat, demonstrated in sixteen lessons」로 번역 출판되어 32가지 다른 넥타이의 스타일을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제안하였다.



<그림9> 19세기 초반 넥타이에 관한 인쇄물

(1) 블랙 스톡

스톡(stock)은 턱 바로 아래까지 높고 꼭 맞게 묶은 후 뒤쪽에서 끈, 버클 혹은 혹과 아이(eye)로 고정시키는 넥클로스(neck cloth)로 때때로 앞쪽에서 나비모양으로 묶었다<그림9-B>²⁵⁾. 주로 모헤어, 버크럼 등으로 제작되었고 가죽으로 형태를 만든 후 그 겉을 벨벳, 새틴, 실크로 싸기도 했다.

스톡은 18세기 초기에는 군복의 일부였으나 1822년 George IV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블랙 벨벳 스톡에 새틴으로 나비모양을 한 것을 'Royal George'라 명명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²⁶⁾.

19세기 전반기에 넥타이의 형태와 매듭이 매우 다양하게 발전했지만 대부분 흰 직물이 사용되었고 검은색이나 그 밖의 색상의 사용이 제한되었다. 그러나 1840년대부터 검은색이 널리 유행되기 시작했으며 1850년대에 이르러서는 검은 색이 흰 색보다 더 환영받게 되었다. 결국 흰 넥타이 착용을 강력하게 반대하던 전통주의자들마저 이를 받아들였다. 더욱이 1848년 폭동 때 프랑스와 독일 혁명주의자들이 정치적 참여자임을 표시하는 일시적 신호로 매고 다녔던 빨간 넥타이에 대한 거부반응 덕택으로 검은 넥타이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²⁷⁾.

(2) 스카프

1837년경에는 검은색 새틴이나 저지로 된 넥타이가 특별히 유행하였으나 넥타이보다 스카프(scarf)라는 목장식이 등장하였다. 이는 네커치프(neckerchief), 밴다나(bandanna)를 손가락 반지나 스카프용 링에 밀어 넣어 매듭 대신 묶었는데 항해사(sailor)의 넥타이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며 매듭을 묶지 않기 때문에 착용하기 편리해 선호된 방식이다.

당시에 매우 장식적인 기성 제품 스카프 링 스타일이 있었으며 스카프 링을 사용하여 묶는 것이 19세기 후반에 유행하게 되었다. 스카프 링과 같은 작은 아이템을 제조하는 업체들은 무역을 통해 알려졌고 1860년경에는 다양한 패턴의 스카프 링의 특허권을 획득하였다²⁸⁾.

(3) 솔 크라바트, 스카프 크라바트

19세기 패션은 점차 보수적으로 변화하여 테일

러링 방식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18세기의 화려한 의복 색조가 점차 약해졌다. 이러한 컬러변화는 웨이스트 코트, 넥타이 등에 적용되었으며 1820년대에서 1830년대 동안 웨이스트 코트와 넥타이의 소재와 컬러 조합이 이전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그림10-A>.

당시 유행하던 남성 패션은 프록코트와 타이트한 팬츠를 착용하고 솔 칼라가 달린 웨이스트 코트를 착용하는 것이었다. 스카프와 스카프 크라바트는 점차 셔츠 전면을 뒤덮을 정도로 넓어져 셔츠 앞에서 타이 핀으로 고정시켜야 했는데 그로 인해 핀의 머리 부분이 점차 장식적으로 변화하고 길이가 길어졌으며 체인 장식이 달리기도 했다<그림10-B>.

당시의 크라바트는 커다란 사각형 혹은 삼각형의 린, 머슬린 혹은 실크 직물로 되어 있고 밴드 형태로 접은 후 세탁부에 의해 풀을 먹인 후 착용되었다. 블랙 혹은 컬러의 크라바트는 일상복에, 스트라이프 혹은 점무늬 패턴이 있는 흰 직물의 크라바트는 약식 정장에, 흰색 무지의 크라바트는 저녁 파티웨어용으로 착용되었다. 때때로 크라바트는 가죽 테두리를 한 버크럼이나 고래 뼈로 만든 심지를 안에 넣고 접어서 착용되기도 하였다.



A. 1840년대

B. 1834

〈그림10〉 솔, 스카프 크라바트

(3) 넥타이와 크라바트

19세기 중반부터 사이즈 뿐 아니라 크라바트와 스톡 스타일도 변화하였다. 남성들은 더 이상 버클 달린 스톡이나 목을 조르는 크라바트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셔츠의 칼라가 낮고 좁아짐에 따라 이에 맞는 적절한 넥타이를 필요로 하였다. 이때부터

‘넥타이(necktie)’라는 용어가 이러한 좁은 밴드로 고정시키거나 나비모양 형태로 묶는 밴드의 명칭으로 쓰이게 되었다. 특히 로우 칼라의 등장으로 인해 다양한 넥타이 형태가 소개되었다. 컬러가 다양한 실크를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으며 이를 묶는 방식도 다양하게 개발되어 나비모양의 보우형(bow knot), 돛 모양의 리프형(reef knot), 항해사의 넥웨어에서 발전된 세일러 형(sailor knot)이 있었다.

1830-1840년대 유행하던 세일러 형 매듭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덩어리진 매듭이 넓은 끝에 놓이고 매듭에서 벌어지는 리프형과 삼각형 매듭에 끝이 직선으로 떨어져 하나가 다른 하나의 위에 놓이며 납작하게 타이가 놓이거나 심을 넣는 슬립형(slip knot)의 두 가지 형식이 있었다.

<그림11>은 1838년 여름 패션을 보여주고 있는 B. Read의 'View in Windsor Park'로 가장 왼쪽 신사는 흰색 스톡과 나비모양 보우를 착용하고, 그와 얼굴을 마주한 신사는 파랑새로 장식한 갈색의 스톡을 하고 나비모양으로 끝을 묶어 풍성하게 드리우고 있다. 승마하는 Victoria 여왕은 조개껍질 같은 모양의 크라바트를 착용하고 있다. 오른쪽 뒤쪽에서 말을 타고 있는 두 명의 남성은 각각 흰색과 검은색의 크라바트를 우편부형<그림9-A 참조>이나 벅클로스와 폭포수처럼 레이어드로 늘어지는 형태로 착용하고 있다. 오른쪽에 땅 위에 서있는 두 명의 남성은 다른 스톡 유형을 착용하고 있는데 한 명은 검은색 스톡에 커다란 보우로 묶고, 다른 한명은 흰색 스톡에 사이즈가 작은 보우를 착용하고 있다. 왼쪽 앞의 소년들은 각각 검은색 보우와 네커치프나 벅클로스를 두르고 끝을 리프형 매듭



<그림11> 넥타이와 크라바트, 1839

으로 묶은 형태를 착용하고 있다. 이 그림은 당시의 다양한 넥타이와 크라바트 형태와 매듭방식을 제시해주고 있다.

4. 1851-1900

1847년 프랑스의 물가등기는 유럽 대륙 전체에 파급되어 공황이 시작되었고 대중의 불평은 1848년 2월 혁명으로 이어졌다. 부르주아들은 Louis Napoleon이 1852년 황제가 되면서 다시 한 번 귀족 취향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향유하게 되었지만 품위 있고 화려한 귀족풍은 1860년대에 이르러 실용적인 것으로 대체되었다.

18세기에 산업혁명을 경험한 영국은 1845년부터 1870년 사이에 세계 면제품 생산량의 반을 총당할 정도가 되어 대규모 무역 확대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식민지 정책으로 전 세계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다. 영국이 유럽사회에서 최강국으로 등장하자 영국의 복식, 특히 남성 복식이 유럽 전체를 이끌어나가게 되었다. 이 시기 여성복에 비해 기능성을 중시하게 된 남성복은 근대적 면모를 완전히 갖추게 되면서 현대 남성복의 원형이 갖추어졌다³⁰⁾.

19세기말 산업의 발달과 함께 도시 생활이 확대됨에 따라 일상생활도 다양해져 의복에서도 일상복, 외출복, 사교복, 운동복 등 용도에 따른 의복의 구분이 뚜렷해졌으며 이러한 현상은 사회활동이 많은 남성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³¹⁾.

특히 복식사상 획기적 발전을 가져온 것은, 1851년 Issac, M.Singer(美: 1811-1875)에 의한 재봉틀의 발명이었다. 또한 1871년 미국에서 패턴(pattern)이 창안됨으로써 재봉틀과 함께 의복구성 기술에 큰 진전을 가져왔다³²⁾. 이로써 남성복은 보다 실용적이고 간소화되었으며 기성복 생산이 활발해졌다. 기성복 생산은 특히 미국에서 두드러졌으며 기성품 넥타이가 대거 등장하였다.

1850년대로 오면서 남성의복에서 가장 큰 변화는 코트, 조끼, 바지로 이루어진 한 벌의 수트가 성립되면서 현대 남성 쓰리피스(three-piece)의 기원을 이루었다는 것이다³³⁾. 이 시기 남성복에 일어난 두 가지 큰 변화는 앞이 깊게 패인 양복저고리나 조끼를 입는 경향과 유연하게 접히는 솔칼라의 유

행이다. 전자의 와이셔츠 앞의 빈 공간을 매워줄 수 있는 긴 넥타이를 필요로 했고, 후자는 한번만 돌려도 목에 잘 감길 수 있도록 보다 좁고 덜 두꺼운 넥타이를 필요로 했다.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넥타이를 매는 사람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문 제조업자가 생기게 되었으며 바이어스 재단으로 한 장의 천에서 많은 양의 넥타이를 생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가격이 저렴해지자 넥타이 애호가 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19세기말 넥타이는 남성복 아이템으로 정착되어 4가지 스타일로 정착되었는데 이브닝웨어용으로 흰색, 검은색을 착용하고 데이웨어용으로는 화려한 컬러나 형태의 보우 타이, 스카프 링으로 착용하는 스카프 혹은 네커치프를 착용하였다. 포멀 웨어나 사냥복에는 애스컷(ascot), 데이웨어나 격식을 차리지 않은 자리에는 편안하게 풀매듭으로 묶는 포-인-핸드(four-in-hand)형을 착용하였다.

(1) 보우 타이

19세기 후반 셔츠의 칼라 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칼라 형태와 높이가 넥타이의 스타일과 사이즈에 영향을 미쳤다.

1860년경, 안에 입는 셔츠의 칼라나 크라바트 또는 넥타이 형이 다양해져 취미나 직업에 따라 사용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직업에 종사하는 신사는 그다지 넓지 않은 뾰뾰한 칼라를 달고 넥타이를 감아 납작하게 보우 타이 형식으로 착용하였으며, 나이 많은 신사들은 뺨 밑까지 오는 폭 넓은 칼라를 하고 크라바트로 화려하게 묶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나 작가들은 좁은 이중 칼라를 선호하였다³⁴⁾.

1860년경 셔츠 칼라는 약간 폭 넓은 1장짜리로 된 형식으로 뾰뾰하게 풀을 먹여 그 위에 크라바트로 벨트 모양의 넥타이를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1860년경에는 셔츠 칼라 폭이 좁아져 턱 밑에서 마무리 될 정도로 되어 그 위에 밴드형 넥타이를 앞에서 한 번 묶어 착용하거나 또는 리본형으로 묶었다. 이로써 오늘날의 화이트 셔츠에서 볼 수 있는 접는 칼라 형식이 시작되었다³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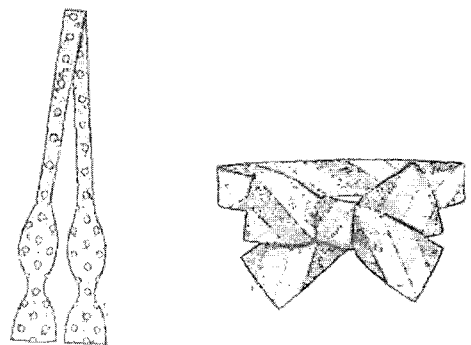
<그림12>는 4개의 19세기 후반 방문용 명함으로 upright all-round 칼라에는 나비모양의 보우타이를 하고, 윙칼라와 턴다운 칼라에 기성품 세일러



<그림12> 19C 방문용 명함

(sailor)형 매듭을 착용하며, upright 칼라에 기성품 애스컷을 착용한 예를 보여주고 있다.

보우 타이 형태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스타일로 나뉘는데 버티플라이 스타일은 넓은 나비 모양으로 끝이 넓고 작은 매듭형으로 펼치면 구근 모양이며 칼라의 크기에 따라 적절한 타이의 크기가 선택되었다<그림13-A>. 또 다른 박쥐 날개형의 배트윙(batwing) 칼라는 좁고 각진 끝 형태로 펼쳤을 때 모양이 없는 직선형이다<그림13-B>.



A. Butterfly Bow Tie B. Batwing Style Bow Tie

<그림13> 보우 타이 형태

(2) 스카프, 네커치프

스카프나 네커치프를 칭하는 용어로 많이 쓰인 또 다른 명칭은 '조인빌(De Joinville)'로 1843년 영국에 방문한 Joinville 왕이 끝이 레이스와 프린지 장식된 매듭으로 묶은 스카프를 소개한데서 온 명칭이다. 이는 끝이 교차되는 것 없이 셔츠 앞에서 엇갈려 펼쳐진다.

<그림14>는 시어스 로벅(Sears&Roebuck)의 카탈로그 222페이지에 실린 5가지 스타일의 넥웨어로 두 번째와 네 번째 그림에 등장하는 조인빌 스카프는 각각 끝이 레이스와 프린지 장식되어 있고 화려한 스카프 링을 사용하여 착용하였다.

이는 다양한 넥웨어 스타일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카탈로그라는 마케팅 매체가 활용됨과 동시에 넥타이 기성 제품이 다양화되고 보편화됨을 입증한다.



〈그림14〉 1897년 Sears&Roebuck 카탈로그

(3) 애스컷

애스컷(ascot) 넥타이는 넓은 자락이 가슴위로 펼쳐지는 넥타이로 스카프 편으로 고정시키며 끝 부분은 대각선 방향으로 재단된다³⁶⁾. 애스컷이라는 단어는 1771년 이래 해마다 4월 영국 잉글랜드 남부의 바크셔 주에 있는 유명한 경마장인 Ascot Health에서 열리는 경마대회에서 유래한 것으로 당시 경기장에 참석한 사람들은 현장에 나온 군주를 예우하여 모두 이런 형태의 천을 의무적으로 착용한데서 유래했다.

1880년부터는 귀족 계급이나 상류층에서 유행하여 대연회 뿐만 아니라 일상 저녁식사나 일요 산책 때도 늘 애스컷으로 목을 장식했다³⁷⁾. 애스컷 넥타이는 매듭이 다른 양식보다 단순한 편이지만, 당시에는 천에 풀을 먹였기 때문에 넥타이를 풀고 매

는 일이 상당히 복잡해서 성급한 젊은이들은 가위로 싹둑 잘라버리곤 했다.

(4) 포-인-핸드

넥타이 착용법이 변화함에 따라 장식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따라서 디자인과 길이가 다양해지고 새로운 소재가 사용되었다. 1890년대에는 포-인-핸드라고 하여 넥타이처럼 앞 중앙에서 묶어 그 끝을 길게 내려뜨린 형식이 확산되어 갖가지 매듭방식이 사용되었다³⁸⁾.

이는 영국에서 스포츠를 좋아하는 귀족들이 즐겨 타던 마차를 끄는데 네 마리 말의 멍에를 묶는 매듭 모양과 비슷하다 하여 붙인 이름이며, 19세기 마차 경주를 하는 젊은 남성들이 그들 타이에 이 유형을 사용하면서 창립된 'four-in-hand club'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또한 영국에서는 더비타이(derby tie) 또는 애스컷 타이로, 프랑스에서는 레가트(regate)로 불렸다.

포-인-핸드 형은 네 번 접는 크라바트(four fold cravat)의 기본 형태로 '넥 밴드 중심에서 바이어스로 이어져 형태가 재단되어 납작해지고 안감과 다른 심지를 대어 형태 틀어짐을 방지한다. 이는 밴다나와 19세기 초의 영국 시인 Byron 같은 로맨티스트들이 단순매듭으로 묶고 다닌 긴 천에서 영향을 받았으며, 포-인-핸드 형이 남성 넥웨어의 기본 형으로 자리잡게 됨에 따라 형태 대신 색상이나 소재가 다양화되고 실용성이 보완되어 오늘날의 넥타이로 정착되었다.

특히 넥타이를 착용하기 전에 착용한 셔츠인 슈미즈의 칼라는 시대에 따라 달랐으며 이 시대의 칼라는 스탠드 칼라와 셔츠 칼라의 형식이 있었다. 스탠드 칼라는 풀칠을 단단하게 해서 칼라 앞 중심 양끝을 꺾어 제쳐 V자형 이룬 것이며 주로 정장용으로 사용되었다. 칼라 폭은 이전보다 조금 좁아졌다. 이때 크라바트는 흑색이나 백색의 가는 리본형으로 조그맣게 매었다. 19세기 초기에는 턴다운 칼라에 타이를 헐렁하게 매듭짓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1870년경에 이르러서 일반화되었다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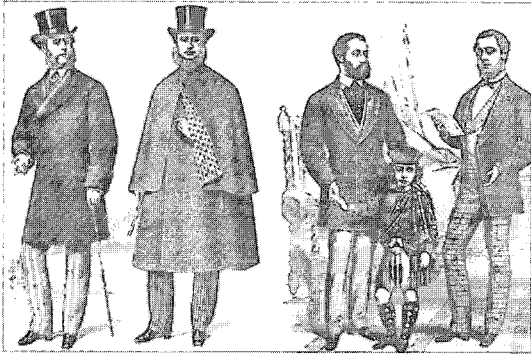
19세기 후반 셔츠의 칼라와 조끼의 형태에 따라 남성복의 V존이 다양해졌다. 좁고 뾰뻑하게 풀을 먹인 칼라 위로 벨트 모양의 넥타이를 하고 점차 칼라의 폭이 좁아짐에 따라 밴드형의 넥타이를 앞

에서 한번 묶거나 리본형으로 묶었다. 또한 조끼의 V존이 낮아짐에 따라 넥타이의 매듭이 길어지고 매듭을 진 후 늘어뜨리는 블레이드가 늘어지는 방식도 다양해졌다<그림 15>.

이상에서 살펴본 16세기-18세기 서양 예술에 나타난 넥타이를 표로 정리하면<표1>과 같다.

IV. 결 론

넥타이는 17세기 이후 영국 중심의 패션이 유럽 전체 모드를 이끌게 됨에 따라 남성복의 현대적 원형이 성립되기 시작하면서 보온과 위생이라는 1차적 신체보호의 목적 이외에 점차 단순화되고 수수해진 수트로 대변되는 남성복에 미적 특성을 부여하는 대표적인 장식 아이템이 되었으며 색상, 소재 등을 통해 착용자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 경제적 부, 정치 성향을 표현하고 과시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남성 정체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그림15>빅토리아여왕 재위기 남성넥타이

<표1> 서양 예술에 나타난 넥타이

| | 1650-1720 | 1720-1800 | 1800-1850 | 1851-1900 |
|------------|--|--|--|--|
| 시대적 특성 | -사치금지령을 통한 복식 안정 -시민문화의 육성 | -사치스럽고 화려한 귀족풍의 로코코 양식 발전 -18세기 중엽 이후 대규모 공장제 생산으로 변혁 진행 -산업혁명 | -프랑스혁명 등으로 민주주의 기틀마련, 시민문화성숙 -귀족풍의 붕괴 | -귀족취향→실용주의 -자본주의의 발전 |
| 남성패션 리더 | Louis IV | 마카로니 앵크로와야블 | Beau Brummel | Emile de LEmpese Byron |
| 남성복 특성 | -시민문화육성을 통한 귀족풍 감소 및 활동성 추구 -단순성, 실용성을 강조한 네덜란드 패션의 유럽 보급 | -직물공업의 기계화 -인쇄술 발달로 출판물을 통한 모드 전달 -기성복점 등장 -영국패션의 보급 | -남성복식의 간소화 -검은색상의 유행 →넥타이의 컬러, 소재 다양화 -인도산 머슬린 수입 | -재봉틀 발명, 패턴제안 -현대적 남성복 원형이 갖추어짐 -일상복, 외출복, 사교복, 운동복 등 용도에 따른 의복 구분 |
| 넥타이 특성 | -넥타이 소유양이 부를 상징 -소재의 고급화 -기성제품의 출현 -크라바트 전문관리인 크라바티어 등장 | -넥타이가 신사복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 -넥타이 기성품 증가 | -넥타이의 일반화 -넥타이에 관한 문헌 정리 -슈미즈나 칼라 모양에 따라 넥타이 사이즈 및 형태 다양화 | -기성품 넥타이 확산 -셔츠 칼라와 조끼의 V존에 따라 넥타이 형태, 길이, 매듭방식 변화 |
| 넥타이 유형 | -밴드 -크라바트 -슈타인커크 | -스톡과 솔리테르 -넥클로스 스톡 -크라바트 | -블랙 스톡 -스카프 -솔, 스카프 크라바트 -넥타이와 크라바트 | -보우 타이 -스카프 -애스킷 -포-인-핸드 |
| 넥타이 색상, 소재 | -밴드: 다양한 색상의 실크 -크라바트: 레이스 -슈타인커크: 머슬린, 캠프릭, 레이스 | -스톡과 솔리테르: 검정색, 다른색 실크, 캠프릭 -크라바트: 론, 머슬린+레이스 끝장식, 모헤어, 버크럼 | -스톡: 블랙 실크, 캠프릭 -스카프: 검은색 새틴 또는 저어지, 스트라이프, 점무늬, 흰색 론, 머슬린, 실크 -넥타이: 흰색, 검은색, 다양한 색상 | 흰색, 검은색 공단이 쓰이다 점차 다양한 색상, 패턴 디자인이 활용됨 |

서양 예술 작품과 패션 관련 문헌자료들에 실린 패션 삽화 등을 중심으로 한 서양 예술에 나타난 넥타이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1660-1720년의 기간에는 사치 금지령을 통해 복식이 안정되고 시민 문화가 육성됨에 따라 귀족풍이 감소하면서 단순성, 실용성 활동성을 강조한 네덜란드 패션이 유입되었다. 복식에 있어서 이전 시대의 화려한 칼라가 사라짐에 따라 넥웨어들이 발전되기 시작했으며 넥타이를 다량 소유하는 것과 고급소재가 부를 나타내주었다. 밴드, 크라바트, 슈타인커크 등의 넥타이 형태가 있었으며 특히 크라바트의 전문 관리인인 크라바티어가 등장하였다.

2. 1720-1800년에는 사치스럽고 화려한 귀족풍의 로코코 양식이 발전되었으며 18세기 중엽 이후 대규모 공장제 생산으로 변혁이 진행되는 산업 혁명이 발생하게 됨에 따라 직물공업이 기계화되고 기성복점이 등장하였으며 인쇄술의 발달로 출판물을 통해 영국 중심의 남성복 모드(mode)가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쳤다. 넥타이가 신사복의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였으며 크라바티어를 고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기성품 넥타이가 증가하였으며 스톡, 솔리테르, 크라바트 등이 유행하였다.

3. 1800-1850년에는 프랑스 혁명 등으로 민주주의의 기틀이 마련되고 시민문화가 성숙됨에 따라 귀족풍이 붕괴되고 남성복이 간소화되었다. 넥타이가 일반화되어 현대 셔츠의 원형인 슈미즈의 칼라 모양과 크기에 따라 넥타이 사이즈 및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특히 넥타이에 관한 문헌 정리가 이루어졌다. 블랙 스톡, 스카프, 솔, 크라바트 등이 유행하였으며 '넥타이'라는 용어가 특정 형식의 넥클로스의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4. 1851-1900년에는 자본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귀족 취향 중심의 남성패션에서 실용주의 중심의 패션으로 전환되었으며 재봉틀이 발명되고 패턴이 활용되었다. 또한 일상복, 외출복, 사교복, 운동복 등으로 의복을 구분하게 되었으며 현대적 남성복의 원형이 갖추어졌다. 기성품 넥타이가 확산되었으며 현대적 남성복 원형이 갖춰지게 됨에 따라 셔츠 칼라와 조끼의 V존에 따라 넥타이 형태, 길이, 매듭방식이 변화하게 되었고 보우 타이, 스카

프, 에스켓, 포-인-핸드 형의 4가지 기본 유형이 확립되었다.

초상화나 패션 삽화는 넥타이의 형태나 길이 매듭 방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화풍에 따라서 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코트, 재킷이나 조끼 아이템에 가려 일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물자료나 보다 다양한 문헌자료를 활용하는 등 폭넓은 맥락에서 연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추후 이 부분을 강화한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실물자료와 문헌자료를 통한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최근 사회전반에 걸친 캐주얼화에 힘입어 남성복의 캐주얼화가 진행됨에 따라 포털웨어의 필수 액세서리 아이템이 변형 발전되고 대체물 발견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다 다차원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참 고 문 헌

- 1) 서향란 (1992). 넥타이에 사용된 직물에 관한 연구. -92년도 시장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이정희 (2005). 넥타이 스트라이프 직물 개발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정은선 (1993). 넥타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삼국시대 금속제관의 조형양식과 문양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옥향 (1998). 넥타이 디자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동아원색 세계대백과 사전 (1986). *동아원색 세계대백과 사전* 7권. 서울: 동아출판사, p.347.
- 4) 프랑수아 사유, 황선희 역 (1999). *l'ABCdaire de la Cravate. 넥타이(cravate)*. 서울: 창해, p.9.
- 5) Laver, J. (1995). *Costume & Fashion-Revised. expanded and updated edition*. London: Thames and Hudson, pp.116-117.
- 6) 박민자 (1986). 남성 넥타이 발전에 대한 역사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4.
- 7) 프랑수아 사유, 황선희 역 (1999). Op. cit., p.58, p.114.
- 8) Ibid., pp.210-211.
- 9) Bigelow, Marybelle, S. (1979). *Fashion in History :Western Dress*. Minnesota:Minneapolis. Burgess

- Publishing co., p.78.
- 10) Bradley, Carolyn, G. (1954). *Western world costume*. New York : Appleton. Centuryed Crofts. Inc., p.132.
 - 11) 정은선 (1993). Op. cit., p.5.
 - 12) Binder, P. (1958). *The Peacock's Tail*. London: George G. Harrys & Co., p.174.
 - 13) Wilcox, R., Turner (1958). *The Mode in Costume*.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p.183.
 - 14) Boak, A. E. R., Slosson, P. & Anderson, H. R. (1946). *World Histor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pp.378-387.
 - 15)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1992). *서양복식사*. 서울: 형설출판사, p.240.
 - 16) 丹野 郁 (1971). *服飾百科事典. 近代編*. 東京: 岩崎美術史, pp.179-180.
 - 17) 김주애 (1998). 로코코 시대의 남성 속옷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6(3), pp. 219-220.
 - 18) 이의정, 정세희 (2004). 예술작품에 나타난 서양 아동복에 관한 연구. *패션과 니트* 2(2), p.48.
 - 19) http://encyclopedia.jrank.org/NAN_NEW/NASH_RICHARD_1674_1762_.html
 - 20)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Phyllis Tortora (2003). *Dictionary of fashion*. London: The Fairchild, p.320; Norah Waugh (1977).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Faber and Faber, p.189.
 - 21) Blanche Payme (1965). *History of costume*. New York: Harper & Row, p.402.
 - 22) Lester, K. M. & Kerr, R. N. (1967). *Historic costume*. Peoria: Chas. A. Benett Co. Inc., p.148.
 - 23) 월간복장. '특집 넥타이'. 1995년 5월호, pp.34-35.
 - 24) Hart, A. (1998). *Ties*. London: Victoria and albert museum, pp.41-42.
 - 25) Yarwood, D. (1986). *The encyclopedia of world costume*. New York: Bonanza Books, p.395.
 - 26) Waugh, N. (1972). *The cut of men's clothes 1600-1900*. 3rd edit. London: Faber & Faber limited, p.118.
 - 27) 프랑수아 사유, 황선희 역 (1999). Op. cit., p.22.
 - 28) 정은선 (1993). Op. cit., p.12.
 - 29) Hart, A. (1998). Op. cit., p.49.
 - 30) 정홍숙 (1981). *복식문화사*. 서울: 교문사, p.257.
 - 31) Yarwood, D. (1992). *Fashion in western world- from 1066 to the present*. London: B. T. Batsford Ltd., p.109.
 - 32) Helen, L., Brockman (1965). *The theory of fashion design*. NewYork: John Willy&Sons Inc., p.66.
 - 33) 김현영, 이순홍 (1998). 남성 Vest의 기원과 변천 과정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6(3), p.65.
 - 34) 프랑수아 사유, 황선희 역 (1999). Op. cit., p.38.
 - 35) 이정옥, 최영옥, 최경순 (1992). Op. cit., p.326.
 - 36) Charlotte Mankey Calasibetta, Phyllis Tortora (2003). Op. cit., p.451.
 - 37) 프랑수아 사유, 황선희 역 (1999). Op. cit., p.78.
 - 38) 서향란 (1992). Op. cit., pp.4-5.
 - 39) Bradfield, N. (1970). *900 years of English costume*. New York: Crescent Books, p.142.